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십대 올인 사회



김종광 소설가

보통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줄 모르고 평생을 산다. 뒤늦게 알아서 대기만성을 이루는 이도 있지만, 대개는 취미 정도로 만족한다. 일찍 시작해서 이미 상당히 이른 자를 따라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찌감치 특출한 재주를 드러내면, 자의든 타의든 평범하게 살 수가 없다. 빨리 이뤄야 한다. 프로 선수 혹은 국가 대표가 되거나, 굴지의 상을 받거나, '스타'의 반열에 올라야 한다. 최소한 그런 대목으로 주목받아야 한다.

천재의 부모는 가능해야 한다. 이 놀라운 재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공 가능할지. 흔히 공부하는 재능 즉, 영·수·국과 문 제 잘 푸는 능력이라면 고민이 없을 텐데, 스포츠·예술·문학·애능·게임 재능이냐!

아무리 특출한 재능이라도 특출한 재능끼리 모이면 순위가 매겨진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바둑 1급의 경지에 도달하면 엄청난 천재일 테다.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한국기원 연구생'이 될 수 있다. 청소년 시절 내내 '연구생'끼리 경쟁하여, 다시 극소수가 '프로'가 된다.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되고자하는 엄청난 가무 천재들이 있다. 이 중에 기획사 오디션에 통과하여 수련생이 되는 아이들은 극소수다. 이 극소수 중에 또 극소수만이 데뷔에 성공한다. 데뷔하는 누구나 '방탄소년단'이나 '소녀시대'를 꿈꿨겠지만 그런 성공은 또다시 극소수만 가질 수 있다.

무수한 천재가 야구나 축구의 재능을 인정받아 경쟁하지만 프로 선수 드래프트에 선발되는 아이는 극소수다. 차선인 대학 선수가 되는 것도 극소수다. 이 재능들처럼 십대 때 데뷔하거나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 답답한 분야가 꽤 많다. 특히 대중의 인기가 높음은 스포츠·연예 분야일수록 모든 운영이 스무 살 이전의 성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기에 발현되는 특출한 재능은 모 아니면 도의 선택

을 요구한다. 무조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올인하거나 아예 시작하지 말거나. 아이만 올인해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함께 올인해야 한다. 금수저 집안이라면 취미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보통 가정은 집안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에 가깝다.

차라리 이러저러해서 가능한 빨리 포기할 수 있으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발을 뺄 수도 없다. 갈 때까지 가보는 수밖에. 별다른 재능이 없어 국·영·수만 했던 아이들은 어찌 됐든 대학의 길이 있지만, 남다른 재능 때문에 국·영·수를 등한시하고 그 재능에 올인했던 아이들은 대학의 길조차 회회해진다.

각계각층에서 조기 발굴한 재능들이 '공부도 하는' '인성도 겸비한' 성공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최고가 되고, 일부는 상위권이 되고, 소수가 대학이라도 갈 수 있고, 다수는 암담한 이십대를 맞이하는 이 승자독식 경쟁 시스템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이들에게 그따위 빛깔 좋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침내 된가 되어도 끝이 아니다. 청춘 스타들은

끝없이 누가 최고인가 경쟁해야 하며 경쟁력을 상실하면 가져 없이 버려진다.

하지만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어도 편한 경우가 있다. 장기를 잘 두는 아이가 안이라면 취미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보통 가정은 집안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에 가깝다. 차라리 이러저러해서 가능한 빨리 포기할 수 있으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발을 뺄 수도 없다. 갈 때까지 가보는 수밖에. 별다른 재능이 없어 국·영·수만 했던 아이들은 어찌 됐든 대학의 길이 있지만, 남다른 재능 때문에 국·영·수를 등한시하고 그 재능에 올인했던 아이들은 대학의 길조차 회회해진다.

감사하지 않은가. 특출 나지 않은 것이, 특출 나기는 하지만 아무도 별다른 취급을 해 주지 않는 재주를 가진 것이. 하나 특출한 아이들이 재주에 올인하는 것과 평범한 아이들이 영·수·국과 문제 풀이에 올인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 재능이 있던 없던 어떨 때부터 줄 세우고 박 터지도록 경쟁시키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담하다.

종교칼럼

물 들어올 때 겸손의 노를 젓자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얼마 전 주먹밥을 메뉴로 작은 노점상에서 시작해 1000여 개가 넘는 전국적인 체인점으로 확장하면서 청년 성공 신화를 이룬 CEO가 마약 투약으로 회사까지 매각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또한 그는 매각 과정을 비밀로 하는 바람에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자신이 만든 가맹점에서 고발까지 당하게 되는 입장이 됐다. 이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마도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권력이 들어올 때, 사업이 잘 될 때, 돈이 잘 벌릴 때와 같이, 일이 잘 되어질 때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 權不十年)이라 했다. 꽃은 열흘을 가지 못

하고, 권력은 십 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권력과 부가 들어올 때 마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소위 '갑질'을 한다던 그 권력과 부는 바람이 이 돼 치명적인 위기로 돌아온다. 일이 잘 될 때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다', '나들이 뭐라고. 시키는 대로나 해'라는 생각에서 자만심을 피운다면 결국 파국의 길로 접어든다.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재석 씨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한 것은 바로 '겸손'이라 했다. 겸손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끊임없는 성공의 길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키워드이다.

집을 지을 때 먼저 하는 것이 상량문을 적어 올리는 일이다. 상량문에 '천상지삼광 인간지오복'(天上之三光 人間之五福)이라는 문구를 적어서 올린다. 그의 미는 '하늘에 해, 달, 별의 기운이 응해 인간 세상에 다섯 가지 복을 내려주소서'라는 뜻이다. 내가 복을 받는 데에는 나의 지은 바 업에 따른 복덕이 있지만, 그 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의 기운을 받아야 그 복을 따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나를 넘어선 그 무엇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의 잘못을 살펴며 위치를 성실하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때야 비로소 '갑질'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먼저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절대적 진리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겸손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

비단장수를 하던 한 청년이 불법을 배우고자 오대산 상원사에서 스승을 찾았다. 스승은 술을 걸라하였고 술을 걸어 놓으면 스승은 걸린 술을 발로 차서 다시 술을 걸게 했다. 이를 여덟 번 되풀이했고 아홉 번째 술이 걸린 뒤에는 구정(九鼎)이라는 호를 받는다. 이 청년이 훗날 대선사가 된 구정선사다. 구정선사는 술을 걸 때마다 걸었다는 마음의 흔적이 없이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르며 다시 걸 때마다 처음 술을 거는 마음을 가졌다.

나에게 부가 들어오거나 권력이 들어올 때 처음 시작하는 때와 같이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중하게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야 한다. 그것이 겸손이다. 겸손하면 직장 생활이나 사업 등에서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단편적인 삶의 일부뿐만 보았을 때

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나, 인생의 긴 여정을 놓고 보면 겸손은 끊임없는 성공을 이루게 해주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 세상 복 모든 것에는 행복 속에 불행의 씨앗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씨앗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태극의 원리이고, 음양의 이치이며, 인연과보의 작용이다.

그러기에 일이 잘 될 때 겸손하지 못하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부패에 빠지고 부가 있는 자는 실패로 돌아간다. 사람이 어려울 때에는 남에게 의지도 하고 자신의 잘못도 돌아보게 돼 그 어려움이 도리어 성공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이 잘 될 때 자만심과 교만, 오만함이 드러나면 오히려 회복하지 못할 큰 실패를 입게 된다.

겸손은 무기력함이 아닌 자기 확신의 관계성에서 발현된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비단 대기업 CEO의 갑질 행태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권력과 부가 들어올 때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흔히 쓰는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라는 말에 한마디를 더 넣고 싶다. '물 들어올 때 겸손의 노를 젓자'라고 말이다.

기고

연구가 없는 대학 평가



김수관 조선대 대외협력처장

진정한 대학의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 예산의 확대, 경영형 사립대의 제도화, 교육부의 합의제 기구 변경 등이 필요하다. 지방 대학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시기에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지식 창출을 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 대학에 대한 평가는 고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제고,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 등 지역 사회의 역할과 책임, 경제 활성화의 주체임을 감안해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의 불합리와 이에 따른 지방 대학의 피해, 나아가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저해를 고려하여 대학 평가 기준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대학들이 스스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평가 기준에 맞춰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교수라면 승진 기준에 맞춰 준비를 할 것이며, 대학 평가 기준이 교육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교육에 대한 평가만 집중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현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것이다.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이 결맞은 전문적이고 창의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동시에 유망 기술을 선도할 혁신적인 역량을 요구한다.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 교

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학 발전 계획 및 성과,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 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의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본연의 목적은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대학 평가에 연구가 없다면 연구는 현재처럼 줄어들게 되고 세계적인 대학과의 연구 경쟁력이 떨어질 것임이 틀림없다. 2018년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타임스 고등 교육)는 가장 공정하게 대학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았으며,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 여건 30%, 연구 실적 30%, 논문 피인용도 30%, 국제화 7.5%, 산학협력 수입 2.5% 등 5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컨설팅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의 2018 대학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학계 평가 40%, 논문당 피인용 수 20%, 교수당 학생 수 20%, 졸업생 평판도 10%,

외국인 교수 비율 5%, 외국인 학생 비율 5% 등 6개 지표로 이뤄졌다. 이처럼 교육 여건과 연구 실적 평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교육과 연구'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연구가 선행된다면 교육의 질은 함께 올라갈 것이므로 교육 평가와 연구 평가가 함께 시행되었으면 한다.

현 평가 지표는 연구 부문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이니 지금이라도 평가 지표가 보완되어 지표 항목의 50% 정도는 연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 중심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평가 지표에 연구력을 포함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연계되어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적 역량을 지닌 경쟁력이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하는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고 지원받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社說

‘광주형 일자리’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완성차 공장을 짓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해 지역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좌초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투자 주체인 현대차가 신차 개발 일정 차질을 이유로 광주형 일자리 참여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 광주 공장 설립은 10월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면서 “10월이 지나면 무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 근거는 신차 개발 일정의 차질이다. 기업 입장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의 호소가 조금은 과장된 제스처일지 모르지만 주변 상황을 볼 때 꼭 과장으로만 여겨지진 않는다. GM 공장이 빠져나가 지역 경제가 공황 상태인 군산시는 적극적으로 현대차에 투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등 연관 인프라가 좋은 데다 간접합까지

갖추고 있어 자칫하면 적정 임금을 핵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광주시와 현대차 간 합의 내용도 공개됐다. 주 44시간 근무에 초임 연봉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연간 최소 7만 대 판매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물량 증가로 노동 시간이 주 44시간을 넘을 경우 초과 근무가 아닌 인력 충원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이만한하면 적정 임금이 적정 근로 조건이 충족되고 잘되면 추가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좋은 조건이다.

초임 연봉 2100만 원 논란을 제기하며 노·사·민·정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계 입장에서도 이제 반대만 할 수 없게 됐다. 노동계가 동참하면 잠시 선로를 이탈한 광주형 일자리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노동계의 통 큰 양보로 22년 만에 현대차의 국내 투자가 광주형 일자리로 실현되길 바란다.

‘임을 위한 행진곡’ MB 정권 때부터 막았더니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를 실질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국가보훈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보수 정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 저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임 정찰도 드러났다.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해 온 보수 정권 시기의 보훈처 위법 행위 진상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재발방지위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제29주년 기념행사 때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배제됐으며 제창과 관련한 파행이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재발방지위는 “2008년 제28주년 기념식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건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의 가치가 담긴 국민 통합의 노래 제창을 청와대가 온갖 핏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가로막았더니 새삼 기가 찰 따름이다. 사실 그동안 물동아 없었으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제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낱낱이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관련, 과연 어느 선에서 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는지, 당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땅에 떨어진 국기를 바로 세우는 일일 것이다.

無等鼓

“흥더분하다”는 어지간히 좋은 느낌이 있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다. 한글의 차지고 기린 맛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 말은 현재 일상어로는 쓰이지 않고 북한의 문학 작품에만 흔적이 남아 있다. 북한 작가 박유하의 ‘그리운 조국 산천’이라는 장편 소설에 보인다. “그와 함께 거기서 흥더분한 초약 냄새가 풍기고 풍로에서 솟아오르는 불빛이 뒷마루 기둥을 불그레 물들이고 있었다.”

지겹다는 의미와 비슷한 ‘질역스럽다’란 북한 말도 우리에겐 생소하게 느껴진다. 북한 소설가 김홍무의 작품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에서 만날 수 있다. “질역스럽게 길던 하루해도 어드워지기 시작하였다.” 매우 다부지다는 의미의 형용사 ‘들박지다’도 북한 소설에 자주가 남아 있는 말이다.

북한 말이 남한에 공식 소개된 것은 2005년 2월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가 꾸려진 이후다.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고 민족 단합과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남과 북의 언어학자 등이 참여 사업을 시작했다. 편찬위원들은 그동안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올림말 30

만 7000여개(기존 어휘 23만 개, 새 어휘 7만 7000개)를 선별했다. 새 어휘는 남·북한, 해외(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사할린 등) 겨레말과 1900년대 이후 남·북 및 해외 동포사회의 문헌 자료에서 추려낸 말들이다.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 북한 조선말대사전에 없는 문헌어·지역어·현장어를 조사한 우리말도 추가돼 있다고 한다.

남북 관계가 늘 그렇듯 사전 편찬 사업은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북한의 핵 실험 등으로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다 2015년 이후 엔 더 이상 진전

이 없었다. 최근 정부가 제572돌 한글날을 계기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남북 언어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 단일 언어를 쓰는 민족으로서 동질감을 회복하자는 취지다. 향후 정치·역학 관계와 무관하게 문화·학술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항구적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남·북한 국어학자 등이 만든 최초의 국어대사전이 나오는 그날을 고대한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자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문화부	기획관리국	업무국
220-0632	220-0652	227-9600	220-0551
경제부	예향부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3	220-0692		
사회부	사진부	디자인실	서울지사
220-0664	220-0693	220-0536	02-773-9331
전남본부	체육부		(FAX 02-773-9335)
220-0642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